

출 장 보 고 서

I. 출장 개요

- 출장건명: 제4회 「한·중농업포럼」 주최 및 중국 종자산업 동향 파악을 위한 현지 출장조사
- 출장목적
 - 한·중농업포럼 주관 및 만찬 참석
 - 중국 종자산업 동향과 전망 파악
 - 중국 진출 국내 종자회사의 운영현황 및 발전 전망
 - 중국 채소종자 육종 실태 및 수출입 현황 파악 등
- 출장지역: 중국 북경, 광주 일원
- 출장자 및 출장기간

부서명(기관명)	직 급	성 명	출장기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기획조정실 농식품정책연구본부	원 장 실 장 연구위원	오 세 익 강 창 용 박 기 환	5.24(월)~5.28(금) (4박 5일)
글로벌협력연구본부	선임연구위원	최 세 균	5.24(월)~5.26(수) (2박 3일)

5. 주요 출장일정

일 자	방문기관	조사내용
5월 24일 (월)	○서울(인천) → 북경 출발 ○연구원 중국사무소	○소장의 중국사무소 운영 현황 보고
5월 25일 (화)	○중국종자협회 ○중국농업부 및 농업과학원 ○주중 한국대사관 ○한·중농업포럼 주관 및 만찬 주제	○중국 종자시장규모, 육종 현황, 종자 회사 수, 보급 실적 등 파악 ○농업부 錢克明 국장, 농업경제발전 연구소 毛世平 부소장 등과 한·중 농업협력방안 논의 ○한·중 FTA 협상 시 농업부문 쟁점 사항 등에 관해 류우익 대사와 환담 ○중국농업부 張紅宇 국장 발표, 주중 농업관련 기관 관계자들과 심층 토론
5월 26일 (수)	○중국농업과학원 채소화훼 연구소 ○중국농업부 농촌경제연구 중심 ○세농종묘, 대일국제종묘 ○북경→광저우 이동	○중국의 채소종자 육종 실적, 보급, 판매 현황 등 파악 ○MOU 체결 기념 세미나 개최, 공동 연구 등 협의 ○한국 종자기업의 중국 진출 현황, 애로 사항, 수출확대 방안 등 논의

일 자	방문기관	조사내용
5월 27일 (목)	○대일국제종묘 육종연구소 ○광주시 종자 수출입회사 ○광주시 종자 관련 기관 대표 간담회 개최	○중국 국내 판매용 고추 종자 육종 현황, 시장 확대 가능성 등 논의 ○중국 종자시장 현황, 수출입 동향, 향후 발전 가능성 등 조사 ○한·중 종자산업 발전 방안 및 상호 협력 방안 등 논의
5월 28일 (금)	○육종연구소 시험포 ○광저우→서울(인천) 입국	○대일국제종묘 육종연구소 시험포 방문, 연구소 시험포 확장 부지 답사 등

6. 주요 방문기관 및 면담자

소속기관	직 급	성명	연락처
중국 농업부	시장·경제통신국장	錢 克 名	010-5919-3272
	산업정책법규국장	張 紅 宇	010-5919-2738
	농촌경제연구중심 부주임	沈 貴 銀	010-6615-4760
	농촌경제연구중심 처장	劉 光 明	010-6617-0970
	농촌경제연구중심 부처장	徐 雪	010-6611-5916
	농촌경제연구중심 부연구원	翟 雪 玲	010-6617-1014
중국 농업과학원	농업경제발전연구소 부소장	毛 世 平	010-8210-8388
	채소화훼연구소 부처장	劉 廣 樹	010-8210-9531
중국 종자 관련	중국종자협회 부회장	李 立 秋	010-6419-4501
	광주시 종자수출공사 총경리	黃 金 虹	020-8636-2612
중국 진출 한국종자기업	북경세농종묘유한공사 총경리	박 상 건	010-6125-1234
	대일국제종묘유한공사 사장	이 숙 순	010-8472-0305
	대일국제종묘유한공사 소장	이 도 현	020-8790-6778
재중국 한국 농업관련 기관 등	농무관	김 진 진	010-8531-0839
	aT센터 북경사무소장	서 현 동	010-6410-6120
	농협 북경사무소장	이 범 석	010-8478-4401
	KIEP 북경사무소장	양 평 섭	010-8497-2870
	현대아산 북경사무소장	권 덕	010-6464-4653
	건홍리서치 총감독	황 영	010-8447-5992

II. 출장 결과

1. 중국종자협회 부회장 면담

- 중국종자협회는 1980년도에 설립되었으며, 정부와 민간기업의 가교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 협회 예산은 정부 요청 사업 시행 시 정부에서 지원 받고 있으나, 대부분 민간기업의 회비로 운영되고 있음.
- 협회에 가입되어 있는 민간업체는 3가지로 분류할 수 있음.
 - ① 종자관리기구, 각 성별 종자단체(기구)
 - ② 종자기업
 - ③ 종자육종연구 기관, 각 성의 종자협회
 - 회원은 380여개이며, 각 성까지 합하면 4,000여개 등 총 4,400여개임.
- 중국종자협회는 조사 연구 위주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종자수입 권리 등은 협회가 가지고 있지 않아 정부가 직접 관리함.
- 중국의 농업인들은 종자에 대해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종자가 없어 식재할 수 없는 상황이었음.
 - 10여년 전부터 논벼에 대해 관심을 두고 신품종을 육종하여 현재 양자강 이북에서는 거의 대부분 개발된 신품종(자포니카)을 재배하고 있음.
 - 수확량은 평균 무당 600kg, 벼(자포니카)는 1ha당 9,000kg에 이르고 있음.
- 종자와 관련된 업무는 2000년도 종자법 발표 이전까지만 해도 연구기관이나 대학 등에서 주로 담당하였으나, 종자법 이후 정부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음.
 - 또한, 종자법 발효 이후 연구 범위가 연구기관, 대학, 민간 등으로 확대되고 있음.
- 우량 품종 보급으로 모든 농작물의 평균 종자 보급률은 95% 수준임.
- 벼 교배종 육성으로 개발된 '슈퍼 벼(싸조토)'로 중국의 국가식량에 안정에 크게 기여하였음.
 - 슈퍼 벼는 강소성, 안휘성 등에서의 병 발생으로 개발되었으며, 품질은 기존의 인디카보다 우수한 것으로 평가됨.
 - 자포니카 계통의 다수확 품종도 육종하였으나, 품질이 낮아 현재 추가적인 연구를 수행하고 있음.

- 중국의 벼는 태국 품종과 경쟁하고 있는데 중국에서 육종한 품종이 태국의 인디카 계통 벼보다 더욱 품질이 뛰어난 것으로 평가함.
- 종자 육종은 ① 국유기업, 농업과학원, 농과대학, ② 대기업, ③ 민간기업 등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기업에서의 육종 연구가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
- 중국의 종자시장 규모는 현재 약 600억 위안 정도로 추정되지만, 향후 발전가능성이 높아 800~1,000억 위안 정도의 시장 잠재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함.
 - 종자규모 600억 위안 가운데 글로벌 기업의 비중은 높지 않은데 옥수수는 글로벌 기업 비중이 10% 내외이며, 과채류 가운데 토마토의 비중이 다소 높은 편임.
- 신품종의 보급은 정부 및 종자생산 기업에서 수행하고 있는데 정부에서 보급하는 것이 공평성 면에서 유리함.
- 현재 중국의 종자회사는 약 8,000여개 정도인데 과다 경쟁과 권리 침해 사건 발생 등으로 너무 많다고 생각됨.
 - 2006년에는 정부소속 기업이 2,300여개였으나, 민영화하여 정부에서는 종자를 보급만 하고 있음.
 - 종자법 이후 종자회사 수가 확대되고 신품종도 증가하였으나, 규모화되지 못해 시장 질서를 교란시키고 있음.
 - 종자시장 질서 유지를 위해 중국 농업부는 물론, 종자협회 차원에서 정돈 작업을 시도하고 있음.
 - 정부는 종자법 발표 이후 동일 품종을 생산하는 기업들에 대해 합병을 독려하고 있으나, 현재 시작 단계이며 합병에 대한 협회의 강제권은 없는 상황임.
- 8,000여개의 종자회사는 실제 연구개발을 거의 하고 있지 않으며, 대부분 종자 판매 위주로 운영되고 있음.
 - 전체 종자회사 가운데 종자 연구·육종이 가능하며, 향후 발전 가능성이 높은 회사는 전체의 2.5%인 200~300개 정도임.
- 면화는 GMO 품종이 많은 편임.
 - 10여년 전에는 몬산토 품종이 대부분이었으나, 현재는 거의 중국산 품종을 사용하고 있어 몬산토 품종 비중은 10% 이하임.
 - 일반면화(재래종)는 티벳 등에서 재배하고 있으며, 내항성 면화는 황하 장강 유역, 교배종은 전국적으로 분포하고 있음.

- 시장에서 벼의 교배종 비중은 전체 벼 재배면적의 약 65% 수준임.
- 채소종자의 경우 고추, 오이, 무, 배추 등은 전체 면적으로 보면 외국산 비중이 높지 않으나, 산동성의 수광시 등 일부지역에는 외국 품종이 많음.

2. 중국농업부 · 농업경제발전연구소 · 농촌경제연구중심 관계자 환담

- 중국농업부 시장 · 경제정보국 청커밍(錢克明) 국장과 만나 중국의 농산물 시장 경제 상황에 대해 논의하고, 한 · 중 농업협력 방안에 관해 상호 의견을 나누었음.
- 중국농업과학원 농업경제발전연구소 부소장 및 연구자들과는 MOU 체결 10주년 기념 한 · 중 세미나 및 제7회 FANEA 한 · 중 · 일 국제심포지엄 참석 등에 관해 협의하였음.
 - MOU 체결 10주년 기념 한 · 중 세미나는 6월 8일 한국농촌연구원 회의실에서 개최될 예정이며, 이 때 연구소 직원뿐만 아니라 중국농업과학원 부원장 일행도 직접 참석하기로 하였음.
 - 제7회 FANEA 한 · 중 · 일 국제심포지엄은 6월 10일 한국 제주도에서 개최되는데 중국측에서는 “농산물 수급예측 이론모형과 가설” 및 “기후변화가 중국농업에 미치는 영향”을 발표하고, 부소장이 제1세션 좌장을 맡기로 협의하였음.
- 중국농업부 농촌경제연구중심 부주임 및 연구자들과 만나 한 · 중 농업발전 및 협력 방안에 관해 의견을 나누었음.
 - MOU 체결한지 2년 이상이 경과하였으므로 금년 중에 MOU 체결 기념 양 기관 공동 세미나를 개최하기로 합의하고, 구체적 일정 등에 관해서는 실무자들 간 협의를 통해 구체화하기로 하였음.
 - 또한, 한 · 중 농업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위탁연구나 공동연구 등도 추진하기로 협의하였음.

3. 제4회 「한·중농업포럼」 개최

- 일시 및 장소: 2010.5.25(화) 16:00~18:00, 북경 수라온
- 발 표 자: 중국농업부 산업정책·법규국장 張紅宇
- 발표주제: “중국의 농업·농촌경제 발전 현황과 2010년 농산물 수급 전망”
- 참 석 자
 -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원장 및 참석자, 주중 농무관, 주중 농업관련 단체 및 기업체 대표, 학계 등
- 발표내용(전문)

중국의 농업·농촌경제 발전 현황과 2010년 농산물 수급 전망

Ⅰ. 중국 농업·농촌경제 발전 현황

2009년 이후 중국의 농업·농촌경제는 지난 몇 년 동안 이룩한 발전과를 유지시켰다. 특히, 금융위기가 심각한 상황 속에서도 식량생산은 6년 연속 증산을 이룩하였으며, 농가소득도 6년 연속 증가라는 성과를 거두어 농업·농촌경제는 지속적인 안정·발전을 실현하였다.

1. 식량 등 주요 농산물의 지속적인 풍년

2009년 식량 총 생산량은 5억 3,080만 톤으로 2004년 이래 6년 연속 풍작을 거두었으며, 2007년 이래 3년간이나 5억 톤을 초과하였다. 육류 총 생산량은 7,642만 톤이며, 수산물은 5,120만 톤에 달하였다.

2. 농가소득의 지속적이고 빠른 증가 유지

2009년 농업인 1인당 평균 순소득은 5,153위안이며, 물가요인을 배제한 실질 증가율은 8.5%로 6년 연속 6% 이상의 증가율을 유지하였다. 즉, 2004~2009년 동안 농업인 1인당 평균 순소득 증가율은 각각 6.8%, 6.2%, 7.4%, 9.5%, 8.0%, 8.5%였다.

3. 농촌 민생문제에서의 현저한 개선 실현

(1) 전국 1억 5,000만 명의 초중고학생 농촌의무교육 단계의 각종 잡비와 교과서 대금을 지속적으로 면제해 주었다.

(2) 2009년과 2010년 중앙에서 신형농촌양로보험에 100억 위안을 배정하여 전국의 27개성(구), 320개 현(시·구·기), 4개 직할시의 일부지역에 시범사업을 실시하였는데 이는 전국 현(縣)급 행정구역의 약 10%에 해당한다. 시범지역의 60세 이상 노인들은 매월 55위안의 보조금을 받게 된다.

(3) 2009년 신형농촌합작의료보험의 보조금은 274.6억 위안, 보험참여 농업인은 8억 3,000만 명에 이른다.

4. 농촌 기초시설 건설에 중대한 지적 달성

(1) 2009년 6,069만 명 농촌인구의 식수안전 문제를 해결하였다.

(2) 1998~2008년 10년간 농촌 전선망 개조에 3,000억 위안 이상을 투자(누적액)하였으며, 2009년 개조한 농촌 전선선로 길이는 약 26만 3,000km에 달한다.

(3) 현재 이미 개통된 농촌도로는 330만km로 면도로(鄉路) 개통율은 99%이고, 95%가 아스팔트 또는 콘크리트 포장도로이다.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중국의 농업·농촌경제는 양호한 발전 추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아울러 다음과 같은 일련의 새로운 시대적 특징을 지니고 있다.

1) 단계성

① 정책방향: 과거의 “삼농”에 대한 “四稅(4가지 세금)”가 현재는 “四補(4가지 보조금)”로 바뀌었으며, 아울러 새로운 환경에 적합한 정책 패러다임을 형성하였다.

② 생산방법: 과거의 식량 등 주요 농산물의 총량 충족을 보장하는 것에서 수량 및 품질을 동시에 보장하는 체제로 전환함으로써 농업의 효율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③ 농산물 무역: WTO 가입 이후 적기에 농산물 수출입 조절 강화를 통해 국내 농업·농산업 안전과 국내시장 안정을 확보하고 있다.

2) 관련성

① 국민경제와의 관련성 심화: 농업은 국민경제의 기초로서 국민경제 발전 속도는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농산업 발전과 농산물 가격 변동에 비교적 큰 영향을 미친다.

② 세계농업의 관련성 심화: 국제 농산물의 생산과 가격, 무역이 국내농업에 미치는 영향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③ 타 산업과의 관련성 심화: 에너지 등 기타 산업과 농업의 융합이 심화되고 공업경제와 도시경제, 농촌경제 간의 융합이 점차 심화되어 생산 전과 생산 후 과정이 농업생산에 미치는 영향이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다.

3) 지역성

① 산업배치의 지역성이다.

② 노동력 이동과 농가소득의 지역성이다.

③ 도농통합의 지역성이다. 경제 발달지역(상하이, 장쑤, 저장, 청두, 충칭 등)은 도농통합 방면에서 실질적인 사업 실행에 착수하였다.

II. 중국 농업·농촌경제 발전의 당면 과제

최근 수년간 중국의 농업·농촌경제가 비록 거대한 성과를 거두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중국의 농업 기초가 허약하고 농촌발전이 지체되는 국면이 근본적으로 개선되지 못해 안정적인 농업발전 및 지속적인 농가소득 증대는 여전히 많은 난관에 직면해 있다. 특히, 공업화, 정보화, 도시화, 시장화 및 국제화가 가속됨에 따라 중국 농업발전의 국내외 환경은 새로운 변화를 초래함으로써 농촌 개혁과 발전은 일련의 새로운 모순과 문제에 봉착하고 있다. 가장 두드러진 모순과 문제점으로는 다음의 네 가지를 들 수 있다.

1. 자원부족이 중국 농업발전을 장기적으로 제약한다.

중국 인구의 지속적인 증가로 농산물 공급 보장 및 인구 과다, 토지와 물 부족이라는 모순이 점차 더 심각해질 것이다. 중국의 경지자원은 급속히 감소하고, 경지의 질이 계속 저하되고 있다. 경지면적은 1998년 19.48억 무(1억 3,000만 ha)에서 2008년말 18.26억 무(1억 2,172ha)로 줄어 연평균 1,000만 무(67ha)가 감소하고 있다. 1인당 경지면적도 1996년의 1.59무에서 2008년 1.38무로 감소하였다. 중국의 농업용수자원은 분포가 불균등하고, 이용효율이 낮다. 2009년 중국의 국민 1인당 평균 수자원은 세계 평균수준의 24.45%에 불과하다. 이 외에 농업 재해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고 수재정도도 매년 가중되고 있다.

2. 농산물 수급 균형 압력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최근 몇 년간 중국의 식량 등 주요 농산물은 연속적인 증산을 이루었으나, 농산물 총량균형, 구조균형 및 품질안전 제고를 확보해야 하는 압력이 가중되고 있다.

수요 측면에서 살펴보면, 중국은 인구가 증가하고, 소비구조가 개선되는 등 생활수준이 지속적으로 향상되고 있어 전체 사회의 농산물에 대한 소비수요는 계속적인 증가를 나타내고 있다.

공급 측면에서는 자원제약이 날로 심화되고 자연재해가 점점 가중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어 농업의 비교 효익이 감소함으로써 농산물의 효율적인 공급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농산물의 국제수급 추세는 전 세계 식량, 유료작물 등 농산물의 수급파동이 확대되고 있어 중국이 국제시장을 이용해서 과부족을 조절하는 불확실성도 증가하고 있다. 농산물의 효율적인 공급을 확보하는 것은 중국 농업의 가장 중요한 임무이다.

3. 농업 생산방식의 낙후 상태는 앞으로도 장기간 지속될 것이다.

중국 농업의 조직화 수준은 비교적 낮을 뿐만 아니라 농업 생산방식도 아직 낙후되어 있고 중소규모의 분산 생산 농가가 주를 이루어 대형 시장 및 대규모 유통체계의 요구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다. 중국의 농가 수는 2억 5,000만이며, 농가 호당 평균 경지면적은 0.5ha에도 미치지 않는데 이와 같은 상황은 앞으로도 장기간 지속될 것이다. 농업산업화 경영에 참가하고 전문합작사에 가입한 농가는 각각 35%, 13%이다. 농가는 규모가 영세하고 실력이 미약하여 시장 파동으로 야기되는 위험을 감당하기 어렵고, 또한 시장경쟁에서 종종 불리한 위치에 처하기 쉽다.

4. 도시와 농촌주민 소득격차 확대 추세는 계속 유지될 것이다.

최근 몇 년간 농가소득이 바닥세를 벗어나 비교적 빠른 증가 추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농업인들의 소득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수 있는 기초가 아직 약해 도시와 농촌주민의 소득격차는 계속해서 확대될 것이다.

도시와 농촌주민의 소득격차는 2002년 3.11:1이었으나, 2009년 3.33:1로 확대되었다. 농촌은 중국의 인구나 취업의 중요한 지역으로 농촌 상주인구가 총 인구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농촌취업인구는 전국 총 취업인구의 2/3를 차지하고 있다. 만약, 도시와 농촌주민의 소득격차를 줄이지 못한다면, 농가소득의 빠른 증가는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 농민의 부유 및 이상 실현이 곤란하고 중국 사회의 화해와 안정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III. 중국 농업·농촌경제 발전의 추진 방향과 대책

향후 중국의 농업·농촌경제 발전 방향은 ① 중국 특색의 농업현대화 추진을 견지, ② 농업 기초를 강화, ③ 식량 안정 발전, ④ 농가소득 증대라는 핵심에 맞추어야 한다. 발전 방식은 확실히 바꾸고, 개혁개방의 부단한 심화와 더욱 강력한 조치로 현대농업을 발전시켜 두드러진 성과를 얻도록 한다. 신농촌건설을 추진하여 현저한 성과를 거둬으로써 농업·농촌경제의 빠른 발전을 실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구체적인 대안으로 다음의 몇 가지를 들 수 있다.

1. 국내 농업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한다.

경지는 농업생산의 중요한 기초자원이며 효율적인 농산물 공급을 위한 가장 중요한 보장이다. 첫째, 경지 총량을 보장하는 것이다. 가장 엄격한 경지보호제도를 시행하여 1억 2,000만ha(18억 무)의 경지 한계선을 고수하여 기본 농경지를 확실히 보호한다. 식량안전과 우세 농산물 생산을 위해 경지자원을 철저히 확보한다. 둘째, 경지의 질을 높인다. 경지 개량을 강화하여 토양비옥도를 높이고 농경지 수리기초시설 건설을 강화하여 토지이용도를 높인다. 셋째, 경지의 작물 배치를 최적화 한다. 식량 생산을 보장한다는 전제 하에 경지를 비교우위를 갖는 원예작물 등에 이용 비중을 높여 토지의 이용효율과 경제효율을 제고한다.

2. 농업과학기술 혁신과 응용수준을 높인다.

중국의 농업을 발전시키는 근본적인 돌파구는 과학기술에 있다. 첫째, 농산물 생산량 확대를 위해서는 과학기술을 이용하여 난관을 극복해야 한다. 식량 품종 측면에서 다수확 품종을 육성하고 재배 주기 단축 및 기술보급을 가속화한다. 축산은 추적전략(追趕戰略)을 실시하여 가축과 가금의 우량품종 육성에 노력한다. 둘째, 우수농산물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기술을 이용하여 공략하여야 한다. 셋째, 생산비를 줄이기 위해 기술연구개발을 전개한다. 투자를 강화하여 선진적인 기술연구개발을 대대적으로 전개한다. 또한, 토지, 물, 에너지 및 노동 절감 농업기술을 보급하여 농업생산비를 낮추고, 농업자원의 이용효율을 높여 농업의 지속 가능 발전을 촉진시킨다.

3. 농업 투입을 확실히 증가시킨다.

중국은 이미 공업화 중기 단계에 진입해 있어 농업 투입을 강화할 수 있는 조건을 구비하고 있다. 첫째, 국가적 투입은 우선적으로 주요 농산물의 효과적인 공급을 보장해야 한다. 자금은 식량주산지에 편재되고 프로젝트도 식량주산지에 집중된다. 둘째, 국가적 투입은 우수농산물에 집중되어야 한다. 셋째, 국가적 투입은 규모의 경제를 조성하고 비교적 높은 토지생산성, 노동생산성 및 자원배치 효율을 발생시켜 농업생산의 효율과 수익을 높이는데 유리해야 한다.

4. 체제 혁신을 계속 추진한다.

중국 농업은 전통농업에서 현대농업으로 전환하는 중요한 시기에 처해 있어 지속적인 체제의 혁신이 필요하다. 첫째, 농업경영방식을 변화시킨다. 농업기본경영제도를 전실히 유지하고 농촌 토지도급 관계를 안정 및 개선시킨다. 자원(自願)과 유상(有償)의 원칙에 따라 토지도급경영권 이전시장의 건전화, 토지이전 중개서비스의 규범화, 토지이전 보상제도 수립을 모색하여 토지경영 적합도의 집중을 실현하여 농업집약화 경영을 유도한다. 둘째, 농업조직화 수준을 제고한다. 농민전문합작사와 산업화 용두기업의 대대적인 발전시키고, 각종 조직의 일반 농가에 대한 파급작용의 강화, 다원화된 농업사회화 서비스 강화로 농업의 규모 효율을 높인다. 셋째, 전업농을 대대적으로 육성한다. 농촌직업교육을 적극 발전시킬 뿐만 아니라 의무교육을 마친 청년 농업인들에 대한 분업교육을 실시하고, 직업기능훈련을 전개하여 현대 농업건설에 적응력을 가진 새농업인을 육성한다.

IV. 향후 중국 농업·농촌경제 상황과 농산물 수급 전망

금년 중국의 농업·농촌경제 발전이 직면한 상황은 매우 복잡하다. 작년 겨울 들어서부터 극단적인 이상 기후 등으로 농업재해가 빈발하여 농업생산에 커다란 어려움을 초래하였다.

중국 농업은 상당한 정도로 기후에 의존하여 농사를 짓고 있는데 올해 몇몇 주요 지역에서 모두 재해가 발생하였다. 서남지역에는 백년 만에 대가뭄이 발생하였고, 북방의 겨울 밀 주산지인 보지 드문 저온 현상이 나타나 겨울이 일찍 시작 되고 봄이 늦게 도래하는 “추돌”로 인해 여름 수확 밀 생산에 불리한 영향을 가져다주었다.

이와 같은 난국을 극복하기 위하여 각급 농업부문은 중앙정책부문이 제시한 “2가지 천방배계”의 목표와 임무, 즉 “천방백계로 식량 생산량을 5억 톤 이상으로 안정을 유지하고, 천방배계로 농가소득 증가율을 6% 이상으로 유지한다”는 방침을 적극 실천하고 있다. 복잡 이상한 기후조건과 각종 불리한 요인의 영향에 적극 대처하고, 적시의 농업 상황 관리, 현 상황에 대한 연구 판단, 업무 배정, 지도 서비스 등을 실시하여 정책 건의를 제시하고 정책조치를 시행해 왔다. 이상과 같이 여러 부문의 공동 노력을 경주한 결과, 종합적인 견해로는 농업·농촌경제 상황은 좋은 편으로 판단된다.

하곡의 생산을 살펴보면, 만약 이후에 큰 기상재해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여름 밀 수확은 좋은 성과를 거두어 하곡 생산은 기본적인 안정을 유지할 것이다.

양식업 생산에서 돼지 가격은 최근 약간의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며, 계란 생산은 안정적이다. 낙농업은 회복 추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어업 생산은 안정적인 성장 추세이다.

농산물 공급 측면에서 시장은 기본적으로 정상 운행이 이루어지고 있어 식량, 돼지, 신선 농산물 등 주요 농산물의 공급은 충분하다. 식량과 면화 가격은 안정적인 가운데 약간의 상승이 있으며, 돼지고기 가격은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채소 등 일부 신선 농산물 가격은 계절성 파동 현상을 나타내고 있다.

농가소득 측면을 살펴보면, 농업인의 외지 취업 수량이 증가하여 1분기 전국 농업인의 현금수입은 동기대비 9.2%가 증가하는 등 올해 식량 생산의 지속적인 증산과 농업인 소득의 지속적인 증가도 여전히 희망적이다.

4. 중국농업과학원 채소화훼연구소 방문

- 중국농업과학원 채소화훼연구소는 우리나라의 농촌진흥청과 상호 협력관계에 있으며, 중국원예학회와 한국원예학회와도 교류하고 있음.
 - 특히, 감자와 관련해서는 우리나라의 농우바이오와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음.
- 연구소는 1958년도에 설립되었으며, 직원은 200여명으로 이 중 육종가는 40~50명 내외임.
- 중국에는 7,000여개 이상의 종자회사가 있는데 대부분의 작은 회사는 주로 종자 판매 중심이며, 20만개 정도의 종자 판매사가 있음.
- 종자 육종에 관해서는 정부 과학연구기관이 장악하고 있으나, 민간기업도 참여하고 있음.
- 중국의 채소종자 시장규모는 약 300억 위안 정도로 추정됨.
 - 1억 위안 이상은 주로 외국기업이며, 중국 국내회사의 규모는 최대 8,000만 위안 정도임.
- 한국의 기업이 중국에 진출하고 있으며, 유럽 등에서는 첨단 기술을 이용하여 중국으로 진출하고 있는 상황임.
 - 대표적인 다국적 기업으로는 신젠타, 다끼이, 한국의 세농, 대일종묘 등이며, 채소종자 시장에서 다국적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10% 내외로 추정됨.

- 연구기관은 이익이 아닌 사회수익에 기초를 두고 있어 어떻게 사회에 종자를 보급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 중국의 채소종자는 과학기관에서 연구·개발 → 식재 → 검토 → 적합지역 선택 → 바이어에게 홍보 → 적합지역 농업인에 보급 등의 절차로 최종 농가에 보급되고 있음.
 - 일부 다국적 기업은 직접 농가에 시험 보급하여 검토한 후 최종 농가에 보급하고 있음.
- 채소화훼연구소 산하기관으로 기업이 있어 종자를 판매하고 있음.
 - 채소 종자가격 형성은 연구소가 주도하며, 민간기업은 연구소 판매가격을 기초로 가격을 설정하고 있음.
 - 산하기관으로 기업을 두고 있는 것은 전체 연구소 예산(2009년도 기준 5,000만 위안) 가운데 정부 지원이 10%, 자체 조달 90%로 자체 수익 창출에 상당한 부담을 가지고 있기 때문임.
 - 이 때문에 연구소가 현재는 연구중심이나, 향후 기업형태 중심으로 변경될 것으로 전망됨.
- 연구소의 주요 육종 채소 품종으로는 양배추, 오이, 토마토, 배추 등인데 중국 채소종자의 경우 교배종 비중이 그다지 많지 않은 편임.

5. 중국 진출 한국 종자기업 등 방문

<중국 종자시장 동향, 한국 기업 진출 상황 등 일반현황>

- 1994년 서울종묘, 홍농종묘, 농우종묘에서 중국으로 진출하였는데 그 당시 종자 생산 후 전량 한국으로 도입하는 것을 조건으로 허가를 받았음.
- 현재는 해외기업의 개별 진출로 허가 받지 못하기 때문에 M&A나 현지인 명의로 종자회사를 설립할 수밖에 없음.
 - 중국은 유전자원 유출 문제 때문에 종자시장을 개방하지 않고 있음.
- 중국은 UPOV에 가입한 국가이나, 품종보호제도가 아직도 미정착된 단계이기 때문에 개발된 품종의 보호를 위해 상표 등록을 하고 있음.
- 중국 시장에서 벼의 교배종 비중이 65%라는 주장이 있는데 이는 교배종이라기 보다는 Local F1으로 보아야 할 것임.
 - 또한, 중국 채소화훼연구소 산하의 판매기업은 사실상 가격형성 기능이 아주

미미한 상황임.

- 중국의 종자 소매 마진은 20~30% 정도로 파악됨.
- 중국의 과채류 종자시장 규모는 약 207백만 달러로 추정되며, 이중 Local F1 · OP 종자시장이 55%, 국내 고정종 시장이 20%, 수입 F1 종자시장이 19%, 가공 · 수출시장이 6% 정도임.
- 중국 시장 내 교배종 무는 한국산이 70%, 배추는 80%를 점유하고 있으며, 고추는 한국 수출을 목적으로 재배되고 있으나, 중국 내 내수용으로는 품종이 많지 않음.
- 최근 중국으로 진출한 한국 회사 간 과당경쟁으로 종자가격이 하락하는 추세임.
- 양배추는 한국의 육종기술이 부족하여 중국 시장에서 고가 유럽형, 중상 일본형, 중저가 한국형, 저가의 중국형으로 평가 받고 있음.
- 당근은 중국 교배종 시장에 한국의 진출 기업이 점유율을 점차 확대해 가고 있는 중임.
- 양파의 경우 한국의 육종기술이 낮으며, 브로컬리는 다국적 기업과 일본의 기술이 뛰어남.
- 중국에 진출한 글로벌 종자기업은 고가 위주를 취급하고 있으며, 한국의 점유율이 높은 무와 배추 등에는 관심이 없음.
- 종자의 중국시장 진출확대를 위해서는 현지 시장 파악을 위한 장기적 관점의 투자가 필요하며, 현지에서 현지인에게 보급 · 관리가 가능한 전문인력 확보도 요망됨.
 - 한국의 개인 육종가들이 품종 개발 후 생산을 위해 중국 해외채종을 하고 있는데 위탁 후 제대로 관리하지 않기 때문에 원재료 유출이 심각한 상황이므로 이를 보다 철저히 관리할 필요가 있음.

<중국 진출 한국 기업의 현황>

- 북경세농종묘 유한공사는 1994년 한국의 농우바이오가 설립한 중국 현지법인이며, 직원은 102명으로 이중 한국에서 파견된 직원이 10명, 나머지는 현지에서 채용한 직원임.
- 세농종묘는 북경연구소(240무, 하우스 100무), 광둥연구소(115무, 하우스 50무), 하북연구소(1,000무, 공사 중으로 금년 작물 식재) 등 3곳에 연구소를 운

영하고 있음.

- 북경연구소는 주로 무, 배추, 양배추, 브로컬리 및 북부지역 품종을 육종·개발하고 있으며, 광둥연구소에서는 수박, 호박, 고과, 남부지역 및 동남아 품종, 하북연구소는 우량조장 생산 및 중부지역 품종을 육종·개발하고 있음.
- 세농종묘의 중국 내수 시장 판매액 약 100억원 정도임.
- 대일국제유한공사는 무, 배추 등의 종자를 중국 내 판매하는 회사로 시장 점유율이 가장 높을 때는 무의 경우 70% 이상을 점유하기도 하였음.
- 중국 시장과 동남아 시장 개척을 위해 고추 품종을 육종·개발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광둥에 육종연구소를 운영하고 있음.
- 광둥 육종연구소 설치를 위해 10억원 정도 투자하였으며, 현재 상당한 종류의 고추 신품종을 개발하고 있음.
- 고추 육종·개발 확대를 위해 새롭게 시험포를 이동하려고 준비 중에 있음.